

국적·문화·언어 넘어서 '글로벌 진로의 세계' 펼쳐진다

전남도교육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서 '진로토크 콘서트' 개최 작곡가 김형석, 영화감독 김한민, 조나단·파트리샤 남매 등 출연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부터 국적과 문화, 언어를 넘어서는 진로의 세계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 펼쳐진다.

전남도교육청은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매일 2시간씩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음악, 영화, 스포츠, IT 등 각 분야 멘토들과 만나는 '진로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막날에는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한국 대표 작곡가 김형석 씨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을 넘어 국제 음악산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한다.

특히 AI 프로그램으로 작곡된 큰 화제를 모았던 박람회 주제곡 등 예술영역에 확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변화하는 미래 직업세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혁신을 이끄는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MS) 이사를 만날 수 있다. 이사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리더, 협력과 성공의 상관관계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그녀의 취업 및 창업 경험, 집필과 강연에서 얻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31일에는 이순신 3부작으로 한국 영화계에 반향을 일으킨 영화감독 김한민이 연단에 선다. 김 감독은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진학을 고민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빛을 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지혜를 깊이 있는 서사를 통해 생동감 넘치게 전한다.

토요일에는 최근 유튜브와 드라마, 예능에서 활

발하게 활동 중인 조나단·파트리샤가 팬들을 만난다. 이들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서 주목받게 된 이야기를 유쾌하고 재치있게 풀어낼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모델로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6월 2일에는 축구 지도자인 손용정 감독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손 감독은 28세의 이른 나이에 부상 후,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철저하게 기본을 강조하는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아들 손흥민을 비롯한 유망주들을 길러냈다. 그는 손 선수를 키운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자녀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 출신으로 경계를 넘어 세계적 성장을 이룬 김형석 작곡가, 김한민 감독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로컬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서울 'BIO KOREA 2024' 참가 광주·전남 보건분야 혁신창업기업 성장 지원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K-바이오헬스지역센터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24'에 참가해 지원 기업인 힐링스, ㈜말랑탱크 등을 소개하고,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BIO KOREA'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보건산업 박람회로 2006년부터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증진과 성장을 목표로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국내 우수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됐으며, 세계 55개국, 707개사,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조선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함께 참가한 지원기업 힐링스는 2020년 3월에 설립되어 환경친화적인 원재료와 생체친화적인 기술로 메디컬

(Medical), 치의학(Dental), 의약외품(Quasi-drug)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힐링스의 주요 제품은 심미수복용복합레진과 3D프린팅용 레진 등이 있다.

㈜말랑탱크는 2023년 5월에 설립된 혁신창업 기업으로 눈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미세먼지, 자외선, 스마트기기로부터 눈을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닥터아이 등이 있다.

한편 조선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는 호남-제주권의 지역 거점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지역 내 우수한 인프라 활용하고 병원 연계를 통해 7년 이내의 지역소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준식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센터장은 "광주·전남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내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의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문화 만든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광주시교육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효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6개 세부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상 성과평가에 적극행

정 노력도를 반영한다.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성과창출을 위해 부서(기관) 포인트 제도도 도입하고, 적극행정 모범 부서를 선정해 현판도 수여할 계획이다.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시행한다.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소송비 지원과 책임보험 가입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참여 독려를 위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부상,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며 "올해도 광주교육이 당연한 현안들을 교육의 본질로 돌아와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민투표를 거쳐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사교육 경감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슬기로운 청렴인사 사업 추진 등 2건을 선정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글로벌 대학' 혁신전략 수립...대학 벽 허물고 지역혁신 도모

본 지정 앞두고 추진과제 재정비 "지역공동체-세계 잇는 창 될 터"

전남대학교가 '글로벌대학 30' 사업 본 지정을 겨냥해 대대적인 혁신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Global, Global+Local)대학 30' 사업은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순천대가 지난해 최종 지정됐고 올해 전남대와 목포대가 예비 대학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지난해 계획을 5개 추진과제, 13개 세부과제로 재정비하고 혁신성을 높여 대학혁신에 추동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대는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벽을 뛰어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극복한다는 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함께 수립한 전남대의 혁신목표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초광역혁신공동체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고급인재를 양성하며, 지·산·학·병·연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학혁신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여수·화순 캠퍼스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특화하고, 고흥·나주에는 각각 우주항공과 미래농업 분야를 이룰 도전캠퍼스를 신설하는 등 '메가(Mega) 캠퍼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 초중고생부터 일반 시민에게 이르기까지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무상 제공해 교양시민 50만 명을 양성하고, 기초학문 젊은 학자 300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듀(Edu) 생태계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Global) 거버넌스 확립'으로, 중국에 해외캠퍼스를 설립하고, 베트남

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세계무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도 세밀하게 다들었다.

여기에는 AI+X 국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화를 이끌 AI글로벌인증센터를 세우는 등 전남대를 아예 '인공지능(AI) 혁신 허브'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학내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성과를 관리하고, '글로벌미래전략대학원'을 신설해 정책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인문철학과 첨단과학의 발달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은 오히려 소멸을 걱정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제는 대학이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 지역공동체를 세계로 이끌고, 세계를 지역사회로 불러들이는 창(窓)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